

대학생의 의류소재 인지도 및 의복구매시 선택기준과 소재의 영향

The Fabric Knowledge and the Selection Criteria & Fabric Impact on Clothing Purchase of University Students

최종명*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Choi, Jongmyoung
Dep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fabric knowledge about apparel products, and to identify not only clothing purchase criteria but the impact of fabrics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clothing purchase. The 234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university students(120 males, 114 females), and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t-test, χ^2 and ANOVA.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students had apparel fabrics knowledge above the average, and there were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knowledge by genders. 2) They put a higher priority, in purchasing apparel products, on factors such as design, size, color, fabric, and price of clothing than those including ease of care, sewing, and fashion trend. 3) The consideration of fabrics influenced a post-purchase process. 4) Male students showed less concern, except information search process, with the fabric than femal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clothing purchase.

Key Words : fabric knowledge, selection criteria, clothing purchase, university students

I. 서론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 요구도가 점차로 높아지게 되면서 의복의 소재,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와 같은 고품질의 요소를 더욱 중요시하게 되었다.

의류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은 구입시점과 착용 후 평가가 다소 차이가 있어, 의복 구입 의사결정에는 색상, 스타일, 맞춤새, 가격, 소재 등의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착용과정에서는 기능성이 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착용과 세탁을 반복하게 되는 내구성 소비재인 의류제품에서 소재의 특성은 디자인, 색상을 유지시켜 주는 의복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구매 후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현대는 소재패션의 시대라고 일컬을 만큼 패션상품의 테마가 스타일과 색채를 거쳐 소재로 이동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의생활관리와 착용목적에 적합한 의류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류소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의류제품을 지각하고 구매하여 착용한 후 관리와 관련되는 일련의 소비행동에서 품질은 의류제품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품질은 제품이 가진 유용성을 특정의 사용목적에 대응하여 고려할 경우의 성분과 성능을 의미하는데, 의류제품인 경우 용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및 소비자에 따라서 품질기준은 달라진다. 즉 소비자는 의복의 용도, 표적시장, 인구통계적 변인과 심리변인에 따라 의복의 품질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데, 의복자체의 물리적 성능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심미적 성능과 기능적 성능을 발휘할 때 의복의 품질이 좋다고 할 수 있다(Brown & Rice, 2001).

의복은 인체에 가장 근접한 환경이면서도 자기표현의 수단이 되므로 물리적 성능과 심미적 성능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류제품의 구매과정은 매우 복잡한 평가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의복은 스타일, 색상 및 소재에 따라 수많은 대안이 존재하므로 의

* 이 논문은 2004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Jongmyoung Choi
Tel: (043) 261-2791, Fax: (043) 274-2792
E-mail: jmchoi@cbnu.ac.kr

복 구매시 소비자들은 위험지각과 함께 많은 인지적 노력을 하게 되는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류제품 구매를 위해 외적 정보탐색 뿐만 아니라 과거 의생활 경험이나 지식에 근거한 내적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의류제품 평가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proles(1979)은 의복의 평가기준은 스타일, 맞음새, 가격, 물리적 특성, 상표이며, 기후, 관리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미영(1989)은 의류제품 특성수준에 따라 스타일, 색채, 섬유 등의 구성요소 수준, 방오성, 신축성 등의 중간적 연결 수준, 품위, 상표의 유명도, 유행 등의 추구 이점의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Eckman 등(1990)은 의복평가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평가기준을 자유기술 응답으로 규명한 결과 구체적인 의복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에서는 스타일, 외관, 봉제상태, 맞음새, 색채/무늬의 순서로 응답하였으나, 구체적인 의복을 고려한 경우에는 스타일, 색채/무늬, 맞음새, 직물, 외관의 순서로 응답하였다고 보고하여 구체적인 의복 품목에서는 소재가 의복평가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현정(1997)은 의복 품질평가 경로에 대한 연구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의복품질을 물리적 의복품질과 성과적 의복품질로 구분하고 물리적 의복품을 결정짓는 단서로 디자인선, 색채와 무늬, 섬유 혼용율, 옷감의 조직, 재단 및 재봉, 부속품, 치수, 가격, 상표, 구매처 등의 물리적 속성과 신축성, 내구성, 내세탁성, 방오성, 위생성, 재질감 등의 물리적 기능을 제시하였다. 정인희(2002)에 의하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을학기 등하교용 재킷이나 점퍼 구매시 평가기준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물리적 속성, 타인의식, 자기만족, 적합성 등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소재는 물리적 속성에 포함되었고 소재와 다른 평가요인의 상관관계로 소재 개념의 다차원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김민수 등(2003)은 의류제품 품질평가속성을 요인분석한 결과 실용성, 관리성, 심미성, 상징성 등의 4요인으로 분류하였는데, 소재/섬유 혼용율이 포함된 관리성은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미혼보다 기혼인 경우 관심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오윤정 등(2004)에 의하면 가족 의류제품의 평가기준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어 20대는 심미성을, 40대는 감각적 성능과 품질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인 경우 미혼에 비하여 가족의류 구매시 감각적 성능과 품질을 더 중요시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의류제품 구매시 아이템과 연령에 따라 소재를 중요시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기술혁신을 통해 다양한 기능성 뿐 아니라 독특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첨단소재가 개발되어 의류제품의 소재가 다양해지고 있고, 소비자의 요구가 개성화, 기능화, 다양화됨에 따라 패션상품의 차별화 수단으로 실

루엣, 색채뿐만이 아니라 소재가 중요시되게 되어 패션업체에서는 패션 트렌드에 부합되는 소재를 만들거나 소재를 선택하여 패션상품 기획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도 용도와 개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하고 패션 트렌드에 부합되는 소재의 의류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의류 소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요구되며, 아울러 의류제품에서 소재는 스타일이나 색상과 함께 디자인의 주된 구성요소이므로 소비자들의 의류제품 구매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만족하는 좋은 품질의 의류제품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하여 청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의류소재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고 의류제품 구매시 아이템별로 소재를 중요시하는 정도와 구매의사 결정 단계별 소재의 영향을 조사하여 성별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은 청주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이었다. 2003년 9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보완하여 10월과 11월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234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이 각각 절반 정도이었으며, 자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계
		빈도(%)	
성	남학생	120(51.3)	234(100)
	여학생	114(48.7)	
학년	1학년	115(49.1)	234(100)
	2~4학년	119(50.1)	
전공	인문사회계열	95(40.6)	234(100)
	자연공학계열	116(49.6)	
	예술계열	23(9.8)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70(31.7)	221(100)
	200~300만원	82(37.1)	
	300~400만원	34(15.4)	
	400만원 이상	35(15.8)	
의복 세탁자	본인	90(38.5)	234(100)
	가족	133(56.8)	
	기타	11(4.7)	
가을철 동학복 세탁방법	물세탁만	83(35.5)	234(100)
	주로 물세탁	89(38.0)	
	물세탁/드라이클리닝 병행	33(14.1)	
	주로 드라이클리닝	29(12.4)	

연공학계열 49.6%, 인문사회계열 40.6%이었고, 가정의 월 평균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37.1%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의복을 직접 세탁하는 경우(38.5%)보다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세탁을 해 주는 경우(56.8%)가 조금 많았는데, 여학생의 경우 의복을 직접 세탁하는 비율(54.4%)이 남학생(45.6%)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을철 통학복의 세탁은 드라이클리닝보다 물세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선행연구(김선경 등, 1997; 정인희, 2002)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선다형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7문항과 의류제품 구매시 고려하는 요인 9문항, 진위형의 의류소재 인지도 17문항 및 5점 리커트 형의 의복구매 단계별 소재의 영향력 관련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을 산출하였고, 성에 따른 차이 분석을 위하여 t-test,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의류소재에 대한 인지도

청주지역 대학생들의 의류 소재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김선경 등, 1997)를 참고로 하여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맞게 응답한 경우 1점, 틀린 경우 0점을 부여하여 계산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의류소재에 대한 인지도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가장 인지도가 높은 문항은 '면 섬유는 땀 흡수를 위하여 속옷으로 적당하다'(평균 0.95)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여성용 스타킹 소재는 대부분이 나일론이다'(평균, 0.78), '합성섬유가 혼방된 면 셔츠는 구김이 적어 관리가 편리하다'(평균 0.77), '마섬유는 시원하지만 구김이 잘 생긴다'(평균, 0.73), '실크로 된 블라우스나 스카프는 물세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평균 0.73)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세

테이트는 강하고 질긴 섬유이므로 작업복에 적당하다'(평균, 0.18)와 '소모사로 된 직물은 방모사 직물보다 고품질이다'(평균 0.17)라는 문항은 낮은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면, 마, 견, 모섬유 등 천연섬유의 특성이

<표 2> 성별 대학생의 의류소재 인지도

의류소재 인지도 평가 문항	전체 (평균)	남학생 (평균)	여학생 (평균)	t-값 (유의 수준)
면은 땀 흡수를 잘하므로 속옷으로 적당하다	0.95	0.93	0.98	-2.09 (p<.05)
여성용 스타킹 소재의 주성분은 나일론이다.	0.78	0.72	0.84	-2.32 (p<.05)
합성섬유가 혼방된 면셔츠는 구김이 적어 관리가 편리하다.	0.77	0.70	0.85	-2.83 (p<.01)
마섬유는 시원하지만 구김이 잘 생긴다.	0.73	0.61	0.85	-4.31 (p<.001)
실크로 된 블라우스나 스카프는 물세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	0.73	0.62	0.85	-4.17 (p<.001)
모직물 재킷을 일반 합성소재로 물세탁하는 것은 좋지 않다.	0.71	0.58	0.85	-4.72 (p<.001)
스판덱스는 신축성이 좋아 활동이 편리하므로 운동복에 적당하다.	0.68	0.68	0.68	0.00 (N.S.)
폴리에스테르로 된 셔츠는 땀을 잘 흡수하지 않는다.	0.66	0.66	0.66	0.00 (N.S.)
60수 면사로 된 면직물은 40수 면직물보다 섬세하고 매끄럽다.	0.62	0.58	0.67	-1.32 (N.S.)
폴리에스테르와 면섬유의 혼방은 면 100%보다 구김이 덜 생긴다.	0.58	0.51	0.66	-2.34 (p<.05)
물 실크는 실크외관과 유사하게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이다.	0.51	0.43	0.60	-2.65 (p<.01)
합성섬유로 된 바지나 셔츠는 보풀이 잘 생긴다.	0.44	0.43	0.46	-0.48 (N.S.)
레이온 안감은 폴리에스테르 안감보다 정전기가 적게 생긴다.	0.43	0.41	0.45	-0.60 (N.S.)
청바지의 소재는 대부분 면 섬유이다.	0.41	0.42	0.41	0.07 (N.S.)
레이온 셔츠는 구김이 잘 생기므로 세탁후 다림질이 필요하다.	0.27	0.30	0.25	0.93 (N.S.)
아세테이트는 강한 섬유가 아니므로 작업복에 적당하지 않다.	0.18	0.22	0.15	1.33 (N.S.)
소모사로 된 직물은 방모사 직물보다 고품질이다.	0.17	0.22	0.12	1.92 (p<.05)
계	0.57	0.52	0.61	-3.87 (p<.001)

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모사의 종류, 레이온이나 아세테이트의 특성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복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용도에 맞는 소재의 선택과 관리가 중요하므로 다양한 의류소재의 특성과 관리 측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류소재에 대한 인지도는 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사의 특성과 관련된 1문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학생의 인지도가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면 섬유의 특성, 스타킹의 소재, 면/합성섬유 혼방직물의 특성, 마직물/실크의 특성, 모직물의 관리, 유사 실크 등에 대해서는 여학생의 인지도가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가정 교과목을 통하여 의복소재의 특성에 대하여 배운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의류소재에 대한 인지도의 총 가능한 점수는 17점이었으나, 본 조사대상자인 청주지역 대학생들은 평균 9.61의 점수를 보여 전체 문항의 반 이상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평가문항을 사용하여 주부를 포함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손부현 등, 2003)에서 나타난 인지도(평균 8.91)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집단이 대학생이므로 대학의 의생활관련 교양과목을 통하여 남녀 대학생 모두 관련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있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고등학교의 가정 교과목에서 배운 관련지식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류소재에 대한 인지도는 성과 의복 세탁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표 3),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류소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의복을 직접 세탁하는 대학생이 타인이 세탁해 주는 경우보다 의류소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직접 세탁하는 경우 소재에 대한 관심이 크고 세탁 경험을 통하여 소재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학년과 전공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의류제품 구매시 선택기준

청주지역 대학생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의류제품 구매시 중요시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의류제품 품목별로 가장 고려하는 요인을 조사하여 정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의류제품 구입시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셔츠/블라우스는 디자인, 치수, 상표, 색상의 순으로, 재킷은 디자인, 가격, 상표, 치수, 바지와 스커트는 디자인, 치수, 색상, 가격, 슈트와 원피스 등의 정장은 디자인, 치수, 가격, 상표, 내의와 란제리는 치수, 소재, 디자인, 가격, 양말과 스타킹은 색상, 디자인, 섬유, 가격, 머플러와 스카프는 디자인, 색상, 소재, 유행성의 순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주지역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의류제품의 선택기준으로 겉옷의 경우 디자인, 치수, 색상, 가격 등의 요인을 중요시하고 있는 반면, 속옷과 패션소품의 경우 치수, 색상, 소재, 디자인의 요인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품목에 따라 중요시하는 선택기준은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의류제품의 선택기준은 품목에 따라 부분적으로 성별 차이를 보였다. 즉 셔츠/블라우스, 바지/스커트, 내의/란제리 및 머플러/스카프 등의 구매시 선택기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가격, 상표, 유행성 등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었으며, 여학생들은 소재, 치수, 디자인은 더욱 중요시하고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내의와 란제리 및 양말과 스타킹의 구매시 섬유소재를 더 중요시하고 있었으나,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겉옷 구매시에는 섬유소재를 덜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킷이나 정장 등은 물세탁보다 드라이클리닝을 요하는 제품이 많지만, 셔츠와 블라우스, 바지와 스커트 등의 겉옷은 물세탁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볼 때 이들 제품 구매시 섬유소재를 고려하는 것이 세탁과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의류제품 구매시 소재의 특성이 착용 후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소재를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의복 구입시 섬유소재에 대한 관심이 디자인이나 색상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의류제품 구매시 섬유소재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의복에 부착된 품질표시의 확인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품질표시를

<표 3>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의류소재 인지도

구분	평균	t(F)-값 (유의수준)	
성	남학생(n=119)	8.94	-3.87 (p<.001)
	여학생(n=114)	10.31	
학년	1학년(n=115)	9.72	0.58 (N.S)
	2-4학년(n=118)	9.50	
전공	인문사회(n=95)	9.60	1.08 (N.S)
	자연공학(n=115)	9.77	
	예 술(n=23)	8.81	
의복 세탁자	본 인(n=90)	10.16	2.38 (p<.01)
	타 인(n=143)	9.27	

<표 4> 의류제품 구매시 품목별 고려하는 선택 기준

N(%)

품목	성별	소재	치수	색상	디자인	가격	상표	유행성	봉제상태	χ^2 (유의수준)
셔츠/ 블라우스	남	5(4.2)	12(10.0)	9(7.5)	65(54.2)	11(9.2)	14(11.7)	3(2.5)	1(0.8)	17.96 (p<.05)
	여	10(8.8)	13(11.4)	8(7.0)	72(63.2)	2(1.8)	4(3.5)	2(1.8)	3(2.6)	
	계(n=234)	15(6.4)	25(10.7)	17(7.3)	137(58.5)	13(5.6)	18(7.7)	5(2.1)	4(1.7)	
재킷/점퍼	남	3(2.5)	8(6.7)	7(5.8)	62(51.7)	18(15.0)	14(11.7)	5(4.2)	3(2.5)	13.72 (N.S.)
	여	10(8.8)	12(10.5)	7(6.1)	64(56.1)	7(6.1)	7(6.1)	6(5.3)	1(0.9)	
	계(n=234)	13(5.6)	20(8.5)	14(6.0)	126(53.8)	25(10.7)	21(9.0)	11(4.7)	4(1.8)	
바지/ 스커트	남	2(1.7)	14(11.7)	13(10.8)	52(43.3)	18(15.0)	9(7.5)	8(6.7)	4(3.3)	80.83 (p<.001)
	여	3(2.6)	28(24.6)	13(11.4)	64(56.1)	2(1.8)	2(1.8)	2(1.8)	0(0.0)	
	계(n=234)	5(2.1)	42(17.9)	26(11.1)	116(49.6)	20(8.5)	11(4.7)	10(4.3)	4(1.7)	
슈트/ 원피스	남	7(5.9)	9(7.6)	9(7.6)	64(53.8)	18(15.1)	6(5.0)	4(3.4)	2(1.6)	13.54
	여	6(5.3)	15(13.2)	4(3.5)	69(60.5)	5(4.4)	11(9.6)	3(2.6)	1(0.9)	
	계(n=233)	13(5.6)	24(10.3)	13(5.6)	133(57.1)	23(9.9)	17(7.3)	7(3.0)	3(1.3)	
내의/ 란제리	남	32(26.7)	38(31.7)	7(5.8)	15(12.5)	18(15.0)	6(5.0)	2(1.9)	2(1.7)	21.36 (p<.01)
	여	38(33.3)	48(42.1)	6(5.3)	14(12.3)	3(2.6)	2(1.8)	0(0.0)	3(2.6)	
	계(n=234)	70(29.9)	86(36.8)	13(5.6)	29(12.4)	21(9.0)	8(3.4)	2(0.9)	5(2.2)	
양말/ 스타킹	남	20(16.7)	11(9.2)	26(21.7)	25(20.8)	21(17.5)	8(6.7)	1(0.8)	8(6.6)	11.28 (N.S.)
	여	25(21.9)	8(7.0)	31(27.2)	30(26.3)	9(7.9)	2(1.8)	9(0.0)	9(8.9)	
	계(n=234)	45(19.2)	19(8.1)	57(24.4)	55(23.5)	30(12.8)	10(4.3)	1(0.4)	17(7.2)	
머플러/ 스카프	남	7(6.1)	3(2.6)	31(27.0)	45(39.1)	12(10.4)	5(4.3)	11(9.6)	1(0.9)	18.71 (p<.01)
	여	17(14.9)	1(0.9)	34(29.8)	52(45.6)	2(1.8)	3(2.6)	4(3.5)	1(0.9)	
	계(n=229)	24(10.5)	4(1.7)	65(28.4)	97(42.4)	14(6.1)	8(3.5)	15(6.6)	2(0.8)	

대부분 확인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9.7%, 가끔 확인하는 경우는 55.1%인 것으로 나타났고, 5.1% 정도는 전혀 확인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5). 따라서 조사대상자 중 품질표시를 대부분 확인하는 경우는 절반 미만이므로 의류제품 정보가 담겨있는 품질표시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학생 소비자들은 의류제품 구매시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는 품질표시는 어느 항목인지를 조사하여 <표 5>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들이 의류제품 구매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품질표시 항목은 치수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취급표시, 섬유소재, 제조회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품질표시를 확인하는 항목은 성별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제조회사와 섬유소재에 대한 표시를 더 많이 살펴보는 것

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여학생은 치수와 취급표시를 더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신의 의복을 세탁하는 비율이 남학생(45.6%)보다 여학생(54.4%)이 더 많으므로 여학생이 취급표시에 대한 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성별에 관계없이 섬유소재에 대한 표기를 중요시하는 정도는 낮은 편이므로 올바른 의류제품의 구매와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섬유소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3. 의류제품 구매의사결정 단계별 소재의 영향

청주지역 대학생들은 의류제품 구매의사결정 단계별로 어느 정도 소재를 중요시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

<표 5> 의복구매시 품질표시 확인정도와 중요시하는 항목

N(%)

품질표시 확인정도	구분	전체	남학생	여학생	χ^2 (유의수준)
	대부분 하는 편	93(39.7)	44(36.7)	49(43.0)	
가끔 하는 편	129(55.1)	67(55.8)	62(54.4)		
전혀 하지 않음	12(5.1)	9(7.5)	3(2.6)		
계	234(100)	120(51.3)	114(48.7)	3.31 (N.S.)	
중요시하는 항목	제조회사	22(10.6)	16(15.7)	6(5.7)	9.81 (p<.05)
	섬유소재	36(17.3)	22(21.6)	14(13.2)	
	치수	85(40.9)	38(37.3)	47(44.3)	
	취급표시	65(31.3)	26(25.5)	39(36.8)	
계	208(100)	102(49.0)	106(51.0)		

행연구(정인희, 2002)에서 사용한 5점 리커트 형의 척도를 조사하여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문항은 '새로 옷을 사고 난 후 생각보다 소재가 좋으면 더 만족스럽다'(평균 4.17)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옷을 살 때 질감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옷감을 만져본다'(평균 3.96)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어느 브랜드에서 어떤 소재를 사용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평균 2.43)이었다. 따라서 청주지역 대학생들은 의복 구매시 문제인식 단계와 정보탐색 단계에서는 소재가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만 대안평가와 구매후 평가 단계에서는 소재의 중요성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의복 구입시 소재의 촉감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옷감을 만져보는 행동에 대한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서 의복 구매시 소재의 질감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구매후 평가에서 소재는 불만족 요인보다 만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성별 구매의사결정 단계별 의복 소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정보탐색 단계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문제인식 단계와 대안평가 및 구매후 평가단계에서 소재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의복 소지수가 많고 의복에 대한 관심이 크며(권수에 등, 2003), 의복의 세탁 등의 의복 소비생활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소재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고품질의 의류제품을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청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류소재의 특성

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고 의류제품 구매시 품목별로 소재를 중요시하는 정도와 구매의사결정단계별 소재를 고려하는 정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의류소재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문항 중 반 이상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리고 자신의 의복을 세탁하는 대학생이 의류소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2. 대학생들은 의류제품 구입시 결로의 경우 디자인, 치수, 색상 등의 요인을, 속옷의 경우 치수, 섬유소재를 중요시하고 있으나, 상표와 유행성 및 봉제상태 등의 요인은 그다지 중요시하고 있지 않았다.
3. 의류제품 선택기준은 성별 차이를 보여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가격, 상표, 유행성을, 여학생은 섬유소재, 치수, 디자인을 더 중요시하였다.
4. 의류제품 구매시 섬유소재를 중요시하는 정도는 의류제품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어 속옷과 양말 등 피부에 접촉하는 의류제품을 구매시 소재를 더 중요시하였다.
5. 대학생들은 의복 구매시 대안평가와 구매후 평가 단계에서는 소재를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의복 구매시 소재의 질감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6. 의복 구매시 정보탐색단계를 제외한 구매의사결정 단계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소재를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의 의류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류소재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므로 대학의 의생활관련 교양과목을 통하여 이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의류제품 구매시 의류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를 확인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착용 목적에 적합한 의류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섬유소재와 관련된 정보는 필수적이므로 의류제품 구입시 품질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

<표 6> 의복 구매의사결정 단계별 소재의 영향

단계	측정문항	전체 (평균)	성별(평균)		t-값(유의수준)
			남학생	여학생	
문제 인식	어떤 소재의 옷이 입고 싶어서 옷을 구입하기도 한다.	2.75	2.52	2.99	-3.77(p<.001)
	옷을 사려고 할 때 어떤 소재로 된 것을 사겠다고 먼저 결정한다.	2.73	2.60	2.86	-2.12(p<.05)
정보 탐색	어느 브랜드에서 어떤 소재를 사용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	2.43	2.42	2.45	-0.25(N.S.)
	새 옷을 사기 위해 요즘 유행하는 소재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2.97	2.88	3.06	-1.32(N.S.)
대안 평가	옷을 살 때 어떤 섬유로 만들어졌는지 알기 위해 품질표시를 살펴본다.	2.72	2.72	2.73	-0.88(N.S.)
	옷을 살 때 질감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옷감을 만져본다.	3.96	3.77	4.16	-3.66(p<.001)
구매후 평가	새로 옷을 사고 난 후 생각보다 소재가 좋지 않으면 구입을 후회한다.	3.68	3.54	3.82	-2.51(p<.01)
	새로 옷을 사고 난 후 생각보다 소재가 좋으면 더 만족스럽다.	4.17	3.95	4.39	-4.49(p<.001)

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의복에 부착된 품질표시로부터 제품의 특성과 손질법 등을 알게 되어 소비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의류제품의 품질표시가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의류제품은 착용과 세탁을 반복하는 내구성 소비재이어서 섬유소재는 구매시점보다 구매 후 품질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류업체에서는 의류소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의류소재 인지도, 선택기준, 의복구매, 대학생

참 고 문 헌

- 권수애, 최종명(2003). 남녀 대학생의 의복소비생활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4): 111-126.
- 김미영(1989). 생활양식유형과 의복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수 · 김문숙(2003).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평가기준. *복식문화연구*, 11(1): 47-65.
- 김선경 · 이희선(1997). 유아복 섬유소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연구. *복식문화연구*, 5(1): 137-150.
- 손부현 · 최종명(2003). 홈쇼핑으로 의류제품을 구매한 여성 소비자의 특성과 구매실태 및 만족도. *한국생활과학회지*, 12(4): 497-508.
- 오윤정, 이영선(2004).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가족의류 평가기준. *한국의류학회지*, 28(3/4): 433-443.
- 오현정(1997). 의복품질의 개념구조와 평가경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인희(2002). 의류제품 구매시 소재의 영향과 소비자 소재 선호 구조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6(1): 83-94.
- Brown, P. & Rice, J. (2001). *Ready-to-wear Apparel Analysis*. Prentice Hall Pub.
- Eckman, M., Damhorst, M. L., & Kadolph, S. J. (1990). Toward a Model of the in-Store Purchase Decision Process: Consumer Use of Criteria for Evaluation Women's Apparel.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8(2):13-22.
- Sproles, G. B. (1979). *Fashion: 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Burgess Pub.

(2004. 09 06 접수; 2004. 11. 15 채택)